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chapia5@hanmail.net



### 총책모임 '초발심 찾기' 해체 선언

9월 24~25일 개최된 조계종 제178회 임시중앙총회에서는 중회의원 스님들이 예년과 달리 총책 집의에 하루일정을 모두 쏟아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의정활동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직자 종교편향과 같은 대사회 문제나 스님들의 사후 재산 종단 귀속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집행부에 예리한 질의를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예년 총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게다가 임시중앙총회를 하루 앞둔 9월 23일, 중앙총회 총책 모임인 금강회가 출범 16년여 만에 모임의 해체를 공식 선언한 것은 더욱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보선, 지홍, 지현, 상운, 월우, 성우, 정광, 보인, 효림 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참여한 금강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책 모임이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권력창출과 유지는 물론 갈등과 반목으로 종단의 안정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초발심을 유지하고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금강회를 해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책모임은 화엄회(20명), 무차회(15명), 무량회(13명), 보림회(12명) 4곳이 남게 됐다.

금강회 해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또다른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시각

도 있다. "해체를 통한 입지 확보"라는 정치적 노림수로 후반기 중앙총회 의장단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총책모임의 해체는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총책모임들은 종권 창출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여, 이런 비판적 시각은 당연한 것이기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회의 해체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 한 마디로도 충분히 교훈이 될만한 결단이 아닌가 한다. "출가 정신은 실종되고 대중공의의 전통은 사라지고 파벌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한 재가단체의 중회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총책모임들은 다시 한번 초발심을 다잡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내를 버린 무아(無我)의 삶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대아(大我)의 동체대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조 승찬 대사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심을 없애니,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했듯이, 여와야를 떠나 모든 총책모임들이 전법도생(傳法度生)이란 한 가지 목표로 보살행에 매진해 우리 사회의 사표가 되길 기원한다.

## 전국 사찰 '개산대재' 축제

### 동화사, 창건 1515주년 기념행사 등 풍성

'가을이 깊어갈수록 불법의 지혜도 무르익는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절의 창건일을 기념하고 개산조의 뜻을 기리는 법회 '개산대재(開山大齋)'가 전국 사찰에서 봉행된다. 이에 가을 산사는 일제히 산문을 열고 반야 도량의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조용한 산사가 근래 들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련법회를 통해 바쁜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자연을 벗삼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개산대재'가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어 포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산이 열린다는 것은 참된 진리의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다. 무명에 휩싸여 어리석었던 지난날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른 삶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풍성한 법사에 시민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

영남불교의 중심사찰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은)는 개산 1515년을 맞아 10월 1일까지 대재를 봉행한다. 진표 율사의 계승자 영심 스님으로부터 법통(佛骨簞子)을 이어받아 동화사를 중창한 심지왕자의 유지를 기리며 10월 3~5일 3일간 봉행한다. 조사전·부도전 헌공다례와 극담 조사 영정 이운식, 개산 법요식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첫날에는 봉황문에서 엄불암까지 이르는 숲길을 걷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서 4일에는 이주여성과 근로자를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성보박물관에서



지난해 10월 20일 봉행된 동화사 창건 1514주년 개산대재 모습.

서명 대사 진영 보물지정을 기념한 특별전을 연다. (053)985-4404

선종수사찰 봉은사(주지 명진)는 9월 29일 개산 1214년을 맞는다. 신라 원성왕 10년(794년) 산문을 연 연회 국사·중흥보 보우 국사·서산 대사·사명 대사 등 역대 조사를 기리며 10월 1일까지 대재를 봉행한다. (02)511-6070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0월 1일 제98주년 창건기념일을 맞아 9월 28~10월 5일 창건주간 기념행사를 연다. (02)732-2183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개산 1199주년을 맞아 10월 11일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다례를 올리고 12일에는 개산대재와 만공불사점등식을 봉행한다. (054)335-3318 부산 범어사(주지 정어)는 개산 1330주년을 맞아 10월 5일까지 금

어문화제를 연다. (051)508-3122

구미 도리사(주지 범등)는 신라에 처음 불법을 전한 아도 화상의 가르침 1591주년을 맞아 10월 2일 다례제와 솔바람 음악회를 연다. (054)474-3737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10월 3~7일 창건 1363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055)382-7182

예산 수덕사(주지 웅산)는 대웅전(국보 제49호) 건립 700주년을 맞아 천여 명의 스님이 국대인양을 기원하는 <법화경> 독경법회를 연다. (041)337-6565

그 밖에도 보은산 석왕사(주지 영담) 9월 29~10월 6일, 김제 금산사(주지 복산) 10월 18일, 공주 감사(주지 태진) 11월 2일에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가연속 기자 omflower@budchapia.com

## 제2회 새터민 영가 천도재 봉행

### 조계종 포교원, 10월 3일 안성 칠장사서

새터민의 한을 보듬는 천도재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10월 3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에서 '제2회 새터민 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번 천도재는 안성시암연합회(회장 각현)와 연계한 포교사업으로 지난 8월 안성 석남사에서 봉행한 '새터민 영가천도재'에 이어 두 번째다. 안성 하나원생 120여 명이 참석할 이번 천도재는 포교원장 혜충 스님의 법문과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의

천도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새터민의 경우 탈북과정과 북한 생활에서 친지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하나원 법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로 새터민이 사찰 신도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10월 중 하나원 법당 완공에 앞서, 9월 23일자로 전국 주요사찰과 신도단체에 후원조직원 명단을 발송했다. 노덕현 기자



## 중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단 지관스님 예방

중국종교인평화회의(CCRP) 실무 대표단이 KCRP 초청으로 방한, 9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세계 평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종교간 이해를 깊게 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중국이슬람협회 유정위 부회장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스님

말씀처럼 세계평화를 위한 것으로 마닐라에서 예정된 ACRP 총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예방에는 중국불교협회 사무총장 수예청 스님과 중국이슬람협회 유정위 부회장(오른쪽부터), CCRP 웨이유엔지 부국장, KCRP 김광준 신부(사진왼쪽)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c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충청지사: (043)732-5560

전북지사: (063)910-5199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열려

#### 10월 9~11일 제주도서

제1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가 '불교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10월 9~11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11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제주대회'는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11시10분~30분 관음사 경내 '지구촌지킴이 생명나무 기념식' 및 '제주도 환경기부' 전달식이 열린다. 김성우 기자

### 조계종 민추분, 통일나무심기운동

#### 9월 27~30일간 평양 양묘장 건설

정치권 대북경색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명진)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은 9월 27~30일 3박 4일간 평양 삼석구 지역에 양묘장을 건설한다.

참관단 100여 명이 참석할 이번 양묘장 건설은 북측의 녹화사업을 후원하는 '통일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묘장은 삼석구 9ha에 건설돼 전 북한지역에

보급하는 묘목 및 종자를 3년 주기로 육성하게 된다.

이번 방북행정은 삼석구 양묘장 뿐만 아니라, 평양 관불사, 백두산·북 불교교류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 136명도 9월 20일 평양을 방문했으며, 9월 22일에는 천주교 정구현전국사제단 신부 96명이 방북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공고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불교출판문화상' 공고가 시작됐다.

이 상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이내에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도서에 대해 우수출서를 포상하는 '올해의 불서' 선정 사업이다.

10월 6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로 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문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동일하이빌 지하1층 주사, (02)3672-7181

가연속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익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홍보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 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0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에서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0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 일시: 불기 2552년 10월 14일(음 9월 16일) 화요일 - 10월 20일(음 9월 22일) 월요일(7일간)

■교육 장소: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84번지 미륵골 무각사(061-362-8902)

■교육 대상: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제출 서류: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교육동참비: 십오만원 (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접수 기간: 불기 2552년 10월 10일까지

■접 수: 교육원장스님 011-9607-5245

교무스님 011-604-9584 재무스님 010-3639-2946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 (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옥, 시식 등)
거체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